

胎黃에 관한 文獻的 考察

김현수* · 이호승**

大韓醫療氣功學會

I. 緒論

胎黃은 胎疸이라고도 稱하며, 新生兒 黃疸로서 嬰兒가 출생한 후 皮膚, 얼굴, 눈 등에 黃色을 띠는 證候를 말한다. 原因은 出産前 産母의 健康상태와 妊娠시 攝生과 관련이 많은데, 症狀이 가볍고 그 症狀이 7일 이내에 소실되는 黃疸은 生理的 黃疸이므로 特別히 치유할 필요가 없으나 7~10일 후에도 黃色이 감퇴하지 않으면서 症狀이 더욱 심해지거나 합병 증이 생기는 黃疸은 病理的 黃疸이므로 症狀에 따라 治療하여야 한다.

黃疸과 관련된 기록은 《黃帝內經》에서 처음 나타나고, 胎疸이라는 病名은 隋의 《諸病源候論》에서 “至生下小兒體皆黃, 謂之胎疸也”라고 처음 언급되었으며, 《小兒雜病諸侯·胎疸侯》篇中에서 “小兒在胎, 其母臟氣有熱, 熏蒸于胎, 至生下小兒體皆黃, 爲之胎黃也”라고 胎疸의 病因, 病機와 臨床표현을 명확히 논술하였다. 宋代에 이르러 錢乙은 《小兒藥證直訣》에서 胎疸의 病理기전을 ‘胃熱’과 ‘胃怯’으로 구분하여 인식하였으며, 元의 朱震亨은 《幼科全書·胎疾》에서 胎疸의 臨床표현을 “小兒生下遍身面目皆黃, 狀如金色, 身

上壯熱, 大便不通, 小便如梔子汁, 乳食不思”등으로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明代 《證治準繩·幼科》에서는 胎疸의 分型治療를 提示하였다.¹⁾

新生兒 黃疸은 만삭아의 경우는 약 50~60% 정도이며, 미숙아의 경우는 약 70~80%에서 黃疸이 나타난다. 新生兒 黃疸은 生理的 黃疸이 대부분이지만 原因을 막론하고 간접 bilirubin이 높은 新生兒 黃疸은 核黃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核黃疸에 걸린 嬰兒는 사망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腦性麻痺, 知能障 碍, 귀머거리같은 후유증을 남기게 되므로 가볍게 취급하면 안된다. 따라서 黃疸의 有無 및 정도, 黃疸의 발생연령 및 原因, 新生兒의 상태 등을 정확히 판단하여야 한다.²⁾³⁾ 그러므로 新生兒의 健康에 있어서 新生兒 病理的 黃疸의 治療 및 豫防의 重要성을 알 수 있다.

이에 著者는 시대별 文獻的 考察을 통해 胎疸의 概念, 病因病理, 治法 및 豫防에

* 大韓醫療氣功學會

** 원광대학교 생리학교실

- 1) 楊思澍 主編：中醫臨床大全,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1, p.743
- 2) 홍창의 著：소아과 진료, 서울, 고려의학, 1994, p.430
- 3) 의학교육연구원 編著：가정의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p.184

관한 지견을 얻었기에 다음과 같이 보고하는 바이다.

II. 本論

1. 概念

(1) 《諸病源候論》⁴⁾

至生下小兒體皆黃，謂之胎疸也。

(2) 《太平聖惠方》⁵⁾

夫小兒黃病者，是熱入於脾胃，熱氣蘊積，與穀氣相搏，蒸發於外，故皮膚悉黃，眼赤黃也，又有百日半歲小兒，非關傷寒溫病，而身微黃者，亦是胃熱

(3) 《宋·錢乙小兒藥證直訣》⁶⁾

身皮目皆黃者，黃病也。身痛膊背強，大小便澀，一身盡黃，面目指爪皆黃，小便如屋塵色，看物皆黃，渴者難治，此黃疸也。二證多病於大病後。別有一證，不因病後，身微黃者，胃熱也。大人亦同。又有自生而身黃者，胎疸也。若淡黃兼白者胃怯，胃不和也。

(4) 《薛氏醫案選·保嬰撮要》⁷⁾

若初生及百日半年之間，不因病而身黃者，胃熱胎黃也。小兒生旬日，面目青黃，此胃熱胎黃也。

(5) 《證治準繩》⁸⁾

-
- 4) 巢元方 編著：蘇氏諸病原候論，서울，大星文化社，1992，p.335
5) 宋太宗命撰：太平聖惠方，서울，翰成社，1983 pp.2668~2669
6) 宋·錢乙 著：小兒藥證直訣，北京，人民衛生出版社，1991，p.22
7) 明·薛己 等著：保嬰撮要，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3，p170
8) 王肯堂 著：證治準繩，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1995，p.66

有生下百日，及半週不因病後身微黃者，胃熱也，若自生而身黃者，胎疸也。若淡黃兼白者，胃怯也。

(6) 《小兒衛生總微論方》⁹⁾

小兒有身體肌膚面目悉黃者，此黃病也。又有自生下，面身沈黃者，此胎疸也。若身微黃者，胃熱也。

(7) 《萬病醫藥古文》¹⁰⁾

生後遍體面目皆黃，是謂胎黃病。

(8) 《吳氏兒科》¹¹⁾

小兒生下後，身體略見黃色者，此生理自然之變化，初無大患者也。

(9) 《張氏醫通》¹²⁾

若初生及百日之中半旬之內，不因病而身黃者，胃熱胎黃也。

(10) 《幼幼集成》¹³⁾

胎黃者，兒生下面目渾身皆黃如金色，或目閉，身上壯熱，大便不通，小便如梔子汁，皮膚生瘡，不思乳食，啼哭不止。

(11) 《醫宗金鑑》¹⁴⁾

胎黃者，遍體面目皆黃，其色如金。

(12) 《萬密齋醫學全書·幼科發揮》¹⁵⁾

胎黃證乃嬰兒出生後，皮膚面目黃染之證。

2. 病因病理

-
- 9) 宋·不著撰者：小兒衛生總微論方，北京，人民衛生出版社，1990，p.410
10) 陸青節 著：萬病醫藥顧問，大中國圖書公司，1987，p.35
11) 吳克潛 著：吳氏兒科學，台北，新文豐出版公司，中華民國66年，p.149
12) 張璠 著：張氏醫通，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1990，p.607
13) 清·陳復正 輯訂：幼幼集成，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8，p.89
14) 清·吳謙 等編著：醫宗金鑑，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1995，p.587
15) 安邦燧 張牧寒 編著：明代萬密齋兒科全書，北京，中醫古籍出版社，1991，p.126

(1) 《太平聖惠方》16)

夫小兒黃病者，是熱入於脾胃，熱氣蘊積，與穀氣相搏，蒸發於外，故皮膚悉黃，眼赤黃也，脾胃內熱，即蒸發於外，令肌膚黃也，此或傷寒，或時行，或溫病，皆有熱不時解，所以入胃也。又有百日半歲小兒，非關傷寒溫病，而身微黃者，亦是胃熱，此是將溫過度。

(2) 《小兒藥證直訣》17)

不因病後，身微黃者，胃熱也。大人亦同。又有自生而身黃者，胎疸也。古書云：諸疸皆熱，色深黃者是也。若淡黃兼白者胃怯，胃不和也。

(3) 《薛氏醫案選·保嬰撮要》18)

乃妊娠厚味胎毒之候也。又有脾虛發黃者，當于胃中救之。小兒因乳母食鬱而致飽脹咽酸，遍身皆黃。

(4) 《王肯堂證治準繩》19)

胎黃之候，皆因乳母受濕熱而傳於胎也。

(5) 《小兒衛生總微論方》20)

黃病也，因將息過度，飲食傷飽，脾胃受熱，與穀氣相搏，蒸發於外。脾胃象土，其色黃，候肌肉，故為是病也。胎疸也。因母藏氣有熱，薰蒸於胎故也。

(6) 《萬病醫藥古文》21)

淫熱太盛，孕婦淫熱太盛，小兒在胎，受母熱毒，生後遍體面目皆黃，是謂胎黃病。

(7) 《吳氏兒科》22)

此由產婦孕時濕熱傳於胎兒。

(8) 《明萬密齋醫學全書·幼科發揮》23)

出生後皮膚面目黃染之證，其輕者多與胎稟

有關，在數日內自行可退，若胎黃數日不退，甚或加重，或兼有其他症狀，則多有胎毒所致，當按濕熱，寒濕辨證論治。

(9) 《壽世保元》24)

一論胎黃者，皆因乳母受熱，而傳于胎也。

(10) 《醫宗金鑑》25)

孕婦濕熱太盛，小兒在胎受母熱毒，濕熱熏蒸胎受深。

(11) 《張氏醫通》26)

其證皆由脾氣有虧運化失職，濕熱留於肌膚發而為瘡，胃熱胎黃也。乃妊母厚味遺毒也。

(12) 《幼幼集成》27)

此胎中受濕熱也。

(13) 《東醫小兒科學》28)

妊娠婦가 濕熱이 심할 때 熱氣의 영향을 받아서 생기는 병이다.

3. 症狀

(1) 《薛氏醫案選·保嬰撮要》29)

身黃者，胃熱胎黃也。腹大食上為脾疳，兼作渴飲冷者，用瀉黃散。小便不利者，茵陳湯。病後發黃，肢體浮腫者，用白朮散。青便自調，肢冷嗜臥者，益黃散。身淡黃白者，調中丸及補中益氣湯加茵陳。身熱膈滿，肌膚面目皆黃者，加減瀉黃散。辨其所以：若閉目壯熱，多哭不已，大小便赤澀，口中熱氣者，乃妊娠厚味胎毒之候也，母子并服生地黃湯，仍忌酒面五辛熱物。設不急自慎，誤傷脾土，急則變為驚風吐瀉，緩則肢體浮腫，小便不利，眼目障

16) 宋太宗命撰：前揭書，pp.2668~2669

17) 宋·錢乙著：前揭書，p.22

18) 明·薛己等著：前揭書，p.170

19) 王肯堂著：前揭書，p.66

20) 宋·不著撰者：前揭書，p.410

21) 陸青節：前揭書，p.35

22) 吳克潛著：前揭書，p.149

23) 安邦焜 張牧寒 編著：前揭書，p.126

24) 明·龔廷賢 撰：壽世保元，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1993，p.521

25) 清·吳謙 等編著：前揭書，p.587

26) 張璐著：前揭書，p.607

27) 清·陳復正 輯訂：前揭書，p.89

28) 김수록 著：동의소아과학，서울，여강출판사，1993，p.77

29) 明·薛己 等著：前揭書，p.170

閉, 多成疳疾矣. 又有脾虛發黃者, 當于脾胃中求之. 小兒旬日內, 先兩目發黃, 漸及遍身.

(2) 《普濟方》³⁰⁾

小兒生下胎黃, 狀如金色, 身上壯熱, 大小便不通, 乳食不進, 啼哭不止, 此胎黃之候也.

嬰兒出胎, 血肉未斂, 面目俱黃, 不啼鼻乾, 撮口, 四肢不能伸縮.

(3) 《王肯堂證治準繩》³¹⁾

小兒生下遍體面目皆黃, 狀如金色, 身上壯熱, 大便不通, 小便如梔汁, 乳食不思, 啼哭不止, 此胎黃之候.

(4) 《小兒衛生總微論方》³²⁾

小有自生下, 面身沈黃者, 此胎疸也.

(5) 《萬病醫藥古文》³³⁾

狀如金色, 胎黃病小兒生下, 遍體面目皆黃, 狀如金色, 身上壯熱, 大便不通, 小便如梔汁, 乳食不思, 諸哭不止.

(6) 《吳氏兒科》³⁴⁾

若身體面目皆黃狀如金色, 身上壯熱, 大便不通, 小便黃如梔汁, 乳食不思, 啼哭不止者.

(7) 《醫宗金鑑》³⁵⁾

兒生遍體色如金.

(8) 《幼幼集成》³⁶⁾

胎黃者, 兒生下面目渾身皆黃如金色, 或目閉, 身上壯熱, 大便不通, 小便如梔子汁, 皮膚生瘡, 不思乳食, 啼哭不止.

(9) 《東醫小兒科學》³⁷⁾

갓난아이가 출생 직후에 피부와 눈알이

누렇다. 대변을 보지 못하고 熱이 있고 煩燥하고 자주 울면서 먹기를 싫어한다.

4. 鑑別

(1) 《小兒藥證直訣》³⁸⁾

有面黃, 腹大, 食土, 渴者, 脾疳也.

(2) 《小兒衛生總微論方》³⁹⁾

若但面黃腹大, 渴而食泥土者, 脾疳也.

(3) 《萬密齋醫學全書·幼科發揮》⁴⁰⁾

至于因小兒蟲積食滯, 脾虛胃弱而成痿黃證者, 雖有周身肌膚淡黃, 但兩目不黃, 此乃氣血生化不足, 不能滋養臟腑肌肉所致. 治當健脾益氣, 消導和中, 以肥兒丸主之.

(4) 《東醫小兒科學》⁴¹⁾

胎黃은 갓난아이가 출생 직후에 피부색이 노란 것을 말한 것이고, 胎赤은 출생 직후에 갓난아이의 피부가 연지를 칠한 것같이 벌건 것이다. 갓난아이가 출생 직후에 피부와 눈알이 누렇다. 대변을 보지 못하고 열이 있고 번조하고 자주 울면서 먹기를 싫어한다.

5. 治法 및 治方

(1) 《薛氏醫案選·保嬰撮要》⁴²⁾

辨其所以

渴飲冷者, 用瀉黃散.

〈瀉黃散〉防風 藿香 生甘草 石膏 山梔子
小便不利者, 茵陳湯.

〈茵陳湯〉茵陳蒿 大黃 梔子

病後發黃, 肢體浮腫者, 用白朮散.

〈白朮散〉乾葛 人蔘 白朮 木香 白茯苓 炙

30) 明·朱橚 等編：普濟方，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3，p.111

31) 王肯堂：前揭書，p.66

32) 宋·不著撰者：前揭書，p.410

33) 陸青節 著：前揭書，p.35

34) 吳克潛 著：前揭書，p.149

35) 清·吳謙 等編著：前揭書，p.587

36) 清·陳復正 輯訂：前揭書，p.89

37) 김수록 著：前揭書，p.77

38) 宋·錢乙 著：前揭書，p.22

39) 宋·不著撰者：前揭書，p.410

40) 安邦煜 張牧寒 編著：前揭書，p.126

41) 김수록 著：前揭書，p.77

42) 明·薛己 等著：前揭書，pp.170~171

甘草 藿香葉
青便自調，肢冷嗜臥者，益黃散。
〈益黃散〉丁香 青皮 陳皮 訶子肉 炙甘草
身淡黃白者，調中丸及補中益氣湯加茵陳。
〈調中丸〉白朮 人參 甘草炒 乾薑
〈補中益氣湯〉黃芪炙 人參 白朮炒 甘草炙
當歸 陳皮 升麻 柴胡
身熱膈滿，肌膚面目皆黃者，加減瀉黃散。
〈瀉黃散〉防風 藿香 生甘草 石膏 山梔子
若閉目壯熱，多哭不已，大小便赤澀，口中熱
氣者，母子并服生地黃湯。
〈生地黃湯〉生地黃 赤芍藥 天花粉 赤茯苓
川芎 當歸 豬苓 澤瀉 茵陳 甘草
小兒旬日內，先兩目發黃，漸及遍身，用瀉黃
散一服而瘥。
小兒生旬日，面目青黃，用瀉黃散，乳調服，少
許即愈，後復身黃吐舌，仍用前藥而安。
小兒因乳母食鬱而致飽脹咽酸，遍身皆黃，余
以越鞠丸治其母，瀉黃散治其子則并愈。
〈瀉黃散〉防風 藿香 生甘草 石膏 山梔子
〈越鞠丸〉香附子 蒼朮 川芎 神麩 梔子

(2) 《普濟方》43)

生地黃湯，治小兒生下胎黃，狀如金色，身上
壯熱，大小便不通，乳食不進，啼哭不止，
此胎黃之候也。生乾地黃，赤芍藥，川芎，
當歸，瓜蒌根，各等分。右咬咀，每服五錢，
水一盞，煎之六分，去滓，產前亦可服，抹
些入兒口中。
甘豆湯，治小兒初生下胎黃。黑豆用一合，甘
草一兩切，右用水一大碗者，臨熱入沙糖少
許，同煎糖化，澄清，遇渴飲之，加淡竹葉
一握，能解五臟熱毒，夏月產者，尤宜服之。
黃龍湯，治嬰兒出胎，血肉未斂，面目俱黃，不
啼鼻乾，撮口，四肢不能伸縮，并宜服之。
山茱萸，山藥，生乾地黃，澤瀉，赤茯苓，

甘草，各一錢，腦子，麝香少許，右爲末，
每服一錢，溫水點服，如小便不通，則用五
苓散，加人參，加茵陳，煉燈心煎服。

(3) 《王肯堂證治準繩》44)

凡有此證，母子皆宜服地黃湯，及地黃飲子。
〈地黃湯〉生地黃 赤芍藥 天花粉 赤茯苓 川
芎 當歸 豬苓 澤瀉 甘草 茵陳
〈地黃飲子〉生地黃 赤芍藥 羌活 當歸 甘草
若自生而身黃者～胎疸也。犀角散主之。
〈犀角散〉犀角 茵陳 瓜蒌根 升麻 甘草 龍
膽草 生地黃 寒水石
若淡黃兼白者，胃怯也，白朮散主之。
〈白朮散〉乾葛 人參 白朮 木香 白茯苓 炙
甘草 藿香葉

(4) 《吳氏兒科》45)

宜母子同服地黃湯，不自乳食與乳母服之，甚
則犀角散，若色淡黃而兼白者，此胃怯也，
宜白朮散，微黃者不必服藥，即欲服藥酌
用三黃湯以清胃熱數日之後其黃自退矣。
又有遍體紅赤者，用生地花粉，甘草，連翹
等分煎服，外用浮萍藍葉水苔搗爛調朴硝
土砂塗之其赤亦退。〈三黃湯〉大黃 黃連
黃芩

(5) 《醫宗金鑑》46)

法當滲濕兼清熱，須分輕重治之，色微黃者，
生地黃湯，深黃者，犀角散。
〈生地黃湯〉生地黃 赤芍藥 川芎 當歸 天花
粉 赤茯苓 澤瀉 豬苓 生甘草 茵陳蒿 引
用灯心 水煎 食前服
〈犀角散〉犀角 茵陳蒿 瓜蒌根 升麻 生甘草
龍膽草 生地 寒水石煨

(6) 《張氏醫通》47)

先如專用剋伐寬中淡泄利水之藥則鮮有不致危

43) 明·朱橚 等編：前揭書，p.111

44) 王肯堂 著：前揭書，p.66

45) 吳克潛 著：前揭書，pp.149~150

46) 清·吳謙 等編著：前揭書，p.587

47) 張璐 著：前揭書，p.607

者，若閉目壯熱多哭不已大小便赤澀口中熱氣乃妊母厚味遺毒也母子并服清胃散生料地黃丸。

〈清胃散〉當歸身 黃連 生地黃 牡丹皮 升麻

(7) 《幼幼集成》⁴⁸⁾

宜茵陳地黃湯，母子同服，以黃退爲度。

〈茵陳地黃湯〉懷生地 京赤芍 正川芎 大黃 歸 天花粉 赤茯苓 結豬苓 茵陳蒿 宣澤瀉

6. 豫候

(1) 《太平聖惠方》⁴⁹⁾

凡發黃而下痢，心腹滿者死。

(2) 《萬病醫藥古文》⁵⁰⁾

黃變黑色，胎黃病失治，淫熱壅盛，乳食不思，爲日既久，黃色變黑，此乃正氣虛衰，邪勢壅盛，攻邪礙正，補正留邪，萬分棘手。

(3) 《吳氏兒科》⁵¹⁾

微黃者不必服藥。

7. 豫防 및 注意

(1) 《太平聖惠方》⁵²⁾

是將溫過度，所宜微薄其依。

(2) 《薛氏醫案選·保嬰撮要》⁵³⁾

孕忌酒麵五辛熱物。

(3) 《張氏醫通》⁵⁴⁾

忌酒麵五辛熱物。倘誤傷脾土，急則驚風吐瀉緩則肢體浮腫小。

III. 考察

胎黃 또는 胎疸은 新生兒 黃疸이며 新生兒 黃疸은 出生시 및 新生兒기에 나타나는 黃疸이다. 태아기에 형성된 bilirubin은 胎盤을 통하여 모체의 肝으로 배설되지만 出生 후부터는 직접 新生兒의 肝을 통하여 배설된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한 장애가 생기게 되면 bilirubin이 皮膚, 粘膜, 鞏膜에 침착되어 黃色을 띠는 證候를 나타낸다. 만삭아의 경우는 약 50~60% 정도이며, 미숙아의 경우는 약 70~80%에서 黃疸이 나타난다.⁵⁵⁾ 新生兒 黃疸은 生理的 黃疸과 病理的 黃疸로 구분되는데 生理的 黃疸은 黃色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全身症狀이 두드러지지 않으며 대부분 1주일 내에 저절로 사라지므로 治療가 필요치 않다. 病理的 黃疸은 黃色의 정도가 비교적 높고 아울러 기타 全身症狀을 나타내므로 반드시 原因을 밝혀 治療하여야 한다.⁵⁶⁾ 新生兒 黃疸은 胎兒의 生死를 좌우할 뿐만 아니라 일생동안 치명적인 후유증인 核黃疸로 인한 腦性麻痺 등 여러 가지 神經症候群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가볍게 취급하면 안된다.⁵⁷⁾

胎黃의 概念을 考察하여 보면 《諸病源候論》에서 “至生下小兒體皆黃 謂之胎疸也”라고 처음 표현한 이래로 《萬病醫藥顧問》에서는 “生後遍體面目皆黃 是謂胎黃也”라고 하였고 《幼幼集成》에서는 “胎黃者 兒生下面目渾身皆黃如金色 或目閉 身上壯熱 大便不通 小便如梔子汁 皮膚生瘡 不思乳食 啼哭

48) 淸·陳復正 輯訂：前揭書，p.89

49) 宋太宗命撰：前揭書，p.2669

50) 陸青節 著：前揭書，p.35

51) 吳克潛 著：前揭書，p.149

52) 宋太宗命撰：前揭書，p.2669

53) 明·薛己 等著：前揭書，p.170

54) 張璠 著：前揭書，p.607

55) 의학교육연구원 編著：前揭書，p.184

56) 楊思澍 主編：前揭書，p.743

57) 의학교육연구원 編著：前揭書，p.184

不止”라고 하였으며 《醫宗金鑑》에서도 “胎黃者 遍體面目皆黃 其色如金”이라고 하였다. 이는 현재의 新生兒 黃疸의 症狀과 일치한다.

《吳氏兒科》의 “小兒生下後身體略見黃色者 此生理自然之變化初無大患者也”는 피부에 黃色을 띠는 것이 가볍고 전신症狀이 뚜렷하지 않으며 1주일 이내에 소실되는 生理的 黃疸의 개념과 일치하며 《幼幼集成》의 “兒生下面目渾身皆黃如金色 或目閉 身上壯熱 大便不通 小便如梔子汁 皮膚生瘡 不思乳食 啼哭不止”는 피부에 침착된 황색의 정도가重하고 1주일 이상 지속되고 전신症狀등이 뚜렷한 病理的 黃疸의 개념과 일치한다. 《小兒藥證直訣》의 “身痛膊背強 大小便澀 一身盡黃 面目指爪皆黃 小便如屋塵色 看物皆黃 渴者難治 此黃疸也”는 病理的 黃疸중 腦性麻痺, 痙攣등 여러 가지 神經症候群이 나타나는 核黃疸의 개념과 유사하다.

胎黃의 病因病理를 考察하여 보면 韓方에서는 胎黃의 原因을 크게 胃熱과 胃怯의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太平聖惠方》에서는 傷寒, 溫病, 時行等 外感의 熱邪가 풀리지 않고 胃에 入하여 된 胃熱과 外邪로 因하지 않았지만 將息過度等으로 인한 胃熱을 原因으로 보았다. 《小兒藥證直訣》에서는 ‘諸疸皆熱’이라고 하여 胎黃(胎疸)을 ‘胃熱’과 ‘胃怯’(胃不和)의 두가지 原因으로 구별하였는데 “自生而身黃者”인 胎疸도 出生後 外感으로 因하진 않았지만 胃에 蘊積된 熱이 原因이므로 胎黃을 크게 胃熱과 胃怯(胃不和)의 두가지 原因으로 구별할 수 있다. 《薛氏醫案選·保嬰撮要》에서는 胃熱과 妊娠厚味胎毒과 脾虛의 세가지로 구별하였다. 《證治準繩》에서는 乳母濕熱과 胃熱, 胃怯으로 구별하였고 《小兒衛生總微論方》에서는 將息過度 飲食傷飽로 因한 脾胃受熱과 母臟氣

有熱熏蒸於胎와 胃熱을 原因으로 보았다. 《張氏醫通》에서도 胎黃의 原因을 胃熱과 胃怯으로 분류하였다.

《證治準繩》, 《萬病醫藥顧問》, 《吳氏兒科》, 《壽世保元》, 《醫宗金鑑》, 《幼幼集成》, 《동의소아과학》에서는 孕婦濕熱熏蒸於胎를 原因으로 보았고 《萬密齋醫學全書·幼科發揮》에서는 “出生後 黃疸의 症狀이 가벼운 것은 胎稟과 관련이 있고 數日내에 저절로 사라진다” 하여 生理的 黃疸을 설명하고 있으며 “胎黃이 사라지지 않고 더 심해지거나 或 다른 症狀을 나타내는 것은 胎毒으로 인한 所致인데 마땅히 濕熱과 寒濕으로 辨證論治해야 한다”고 하여 病理的 黃疸의 특징과 濕熱胎毒과 寒濕胎毒으로 辨證論治해야함을 설명하고 있다.

洋方에서는 新生兒 黃疸을 生理的 黃疸과 病理的 黃疸로 大別한다. 病理的 黃疸의 原因으로는 溶血性 貧血, 內部出血, enterohepatic circuration의 증가, 感染, 代謝疾患等を 들고 있다.

韓方에서는 新生兒 黃疸의 原因으로 “孕婦濕熱熏蒸於胎”를 들어 產母의 濕熱이 胎兒에게 미쳐서 黃疸을 일으킴을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產母의 出産前 健康狀態와 妊娠時 食習慣이 胎兒의 健康과 新生兒 黃疸의 豫防에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胎黃의 症狀을 考察하여 보면 病理的 黃疸은 生理的 黃疸에 비하여 色素沈着外에 發熱, 消化障礙, 大小便障礙, 啼哭不止와 특히 重症黃疸인 核黃疸에서는 四肢痙攣등의 全身症狀이 두드러진다. 《薛氏醫案選·保嬰撮要》는 “若閉目壯熱.....急即變爲驚風吐瀉.....”라고 하여 病理的 黃疸을 설명하였고 특히 痙攣, 腦性麻痺등 神經證候群을 나타내는 核黃疸의 症狀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普濟方》도 “狀如金色 身上壯熱 大小

不通.....此胎黃之候也”라고 하여 病理的 黃疸를 논술하였고 “嬰兒出胎.....撮口 四肢不能伸縮”의 症狀는 核黃疸와 유사하다. 《證治準繩》, 《萬病醫藥顧問》, 《幼幼集成》, 《小兒衛生總微論方》, 《醫宗金鑑》 《吳氏兒科》 등에서도 黃疸의 症狀를 설명하였다. 《吳氏兒科》는 “小兒生下後 身體略見黃色者 此生理自然之變化 初無大患者也”라고 生理的 黃疸를 명확히 논술하였다.

胎黃의 鑑別을 考察하여 보면 《小兒藥證直訣》과 《小兒衛生總微論方》은 面黃, 腹大, 渴而食土를 특징으로 하는 脾疳과 鑑別하였고 《萬密齋醫學全書·幼科發揮》는 氣血生化不足으로 臟腑肌肉을 滋養하지 못하여 皮膚만 淡黃色이고 兩目은 不黃인 痿黃證과 鑑別하였고 健脾益氣, 消導和中的 治法과 肥兒丸의 治方도 제시하였다. 동의소아과학은 皮膚가 연지를 칠한 것 같이 붉은 색인 胎赤과 鑑別하였다.

胎黃의 治法과 治方을 考察해보면 胎黃의 原因을 크게 胃熱과 胃怯으로 나누어 治法과 治方도 나눌 수 있다. 胃熱에는 瀉黃散, 生地黃湯, 犀角散, 茵陳湯, 甘豆湯, 黃龍湯, 三黃湯, 清胃散, 茵陳地黃湯 등을 사용하였고 胃怯(胃不和)에는 白朮散, 越鞠丸, 益黃散, 調中丸, 補中益氣湯 등이 사용되었다.

豫候에 대하여 考察하여 보면 《太平聖惠方》에서는 發黃而下痢하고 心腹滿者는 죽고 《萬病醫藥顧問》에서는 胎黃을 失治하면 黑色이 되는데 이는 正氣虛衰한데 邪勢壅盛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吳氏兒科》는 微黃者不必服藥이라하여 生理的 黃疸은 治療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豫防 및 注意를 考察해 보면 《太平聖惠方》에서는 胃熱胎黃에 灸를 加하면 將溫過度하여 熱甚하게 되는데 마땅히 微薄其衣하고 除熱之藥으로 治療해야 한다고 하였다.

《薛氏醫案選·保嬰撮要》와 《張氏醫通》에서는 妊娠婦가 酒麵五辛熱物을 誤食하여 脾土을 傷하면 驚風吐瀉 緩即肢體浮腫等과 같이 胎兒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新生兒를 將溫過度하는 경우 熱이 많은 新生兒에게는 좋지 않음을 알 수 있고 또한 妊産婦도 飲食攝生에 注意를 기울여 酒麵五辛熱物을 忌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IV. 結論

以上 胎黃에 관한 여러 시대별 文獻을 考察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胎黃은 胎疸이라고도 하며 新生兒가 출생후 皮膚, 粘膜, 鞏膜에 黃色을 띠는 證候로서 新生兒 黃疸이며 生理的 黃疸과 病理的 黃疸를 포괄한다.
2. 胎黃의 原因은 孕婦胎毒傳於胎와 胃熱과 胃怯(胃不和)의 세가지로 볼 수 있다.
3. 胎黃의 治療에서 孕婦胎毒傳於胎의 경우는 新生兒만 아니라 産母에게도 藥을 服用시킨다. 妊娠厚味胎毒의 경우 産母와 新生兒 모두에게 生地黃湯을 服用시켜 治療한다. 孕婦가 食鬱되어 胎兒가 黃疸이 된 경우 産母에게는 越鞠丸을 服用시키고 新生兒는 瀉黃散을 服用시킨다. 胃熱胎黃은 瀉黃散, 生地黃湯, 犀角散, 茵陳湯, 甘豆湯, 黃龍湯, 三黃湯, 清胃散, 茵陳地黃湯 등을 사용한다. 胃怯胎黃은 白朮散, 越鞠丸, 益黃散, 調中丸, 補中益氣湯 등을 사용한다.

V. 參考文獻

- 1). 楊思澍 主編 : 中醫臨床大全,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1.
- 2). 홍창의 著 : 소아과 진료, 서울, 고려의학, 1994.
- 3). 의학교육연구원 編著 : 가정의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 4). 巢元方 編著 : 蘇氏諸病原候論, 서울, 大星文化社, 1992.
- 5). 宋·太宗命撰 : 太平聖惠方, 서울, 翰成社.
- 6). 宋·錢乙 著 : 小兒藥證直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
- 7). 明·薛己 等著 : 保嬰撮要,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 8). 王肯堂 著 : 證治準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5.
- 9). 宋·不著撰者 : 小兒衛生總微論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 10). 陸青節 著 : 萬病醫藥顧問, 大中國圖書公司, 1987.
- 11). 吳克潛 著 : 吳氏兒科學, 台北, 新文豐出版公司, 中華民國66년.
- 12). 張璠 著 : 張氏醫通,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 13). 清·陳復正 輯訂 : 幼幼集成,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8.
- 14). 清·吳謙 等編著 : 醫宗金鑑,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5.
- 15). 安邦焜 張牧寒 編著 : 明代萬密齋兒科全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1.
- 16). 明·龔廷賢 撰 : 壽世保元,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3.
- 17). 김수록 著 : 동의소아과학, 서울, 여강출판사, 1993.
- 18). 明·朱橚 等編 : 普濟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